

# COVID-19와 무역의 연관성 분석

( 2002 ~ 2021.06월까지 무역데이터와 2020.01 ~ 2021.07월까지 전  
세계 COVID-19 확진자 데이터 )

김 도희  
이 광평  
이 현민

# [ 목 차 ]

1. 분석 요약 .....	3
I) COVID19 .....	3
II) 무역데이터 .....	3
III) OECD 통계 .....	3
IV) 결론 .....	3
 2. COVID19와 수출량 분석 .....	4
I) 전 세계 COVID19 상황 .....	4
II) 우리나라 및 각 나라별 수출량 동향 .....	4
III) 나라별 COVID19 확진자 수와 수출량의 상관관계 .....	5
IV) 수출량 증가 분석 .....	6
V) 세계 무역 분석 .....	8
- OECD 자료 .....	8
 3. 참고 자료 출처 .....	9

# COVID19와 무역데이터의 분석 요약

## 분석 결과 요약

### 1. COVID19

- 20년 1월부터 21년 7월까지 COVID19 확진자 수는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음  
(월평균 약 1,100만 명)
- 20년 1월부터 21년 1월까지 지속해서 증가

### 2. 무역데이터

- 우리나라 수출량과 COVID19 확진자 수의 상관성을 분석(상관계수 0.71)
- 중국(0.79), 일본(0.53), 미국(0.58), Eu(0.47)로 COVID19 발생부터 현재까지 경기 침체에 대한 회복 및 플러스 성장

### 3. OECD 통계 자료

- 지난 5월 OECD 국제 무역통계 1분기 동향을 보면, 영국을 제외한 모든 G20 국가들이 회복과 함께 플러스 성장을 기록
- 미국 달러의 약세 및 상품 가격과 원자재, 원유가격 상승으로 수출가치가 상승

### 4. 결론

- 우리나라 7월 수출량은 554억 달러로, 역대 최고 수출량을 기록
- 중국, 일본, 미국, 대만도 COVID19 이전보다 더 나은 수출량을 기록
- COVID19와 수출량의 상관계수 결과가 경기 침체를 회복하는 과정으로 인해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뿐만 아니라, 상품 가격과 원자재 가격을 높이고, 원유가격을 상승시키는 직접적인 요소로 작용 하면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그로 인해 몇몇 나라들이 이례적인 수출량을 기록하고 있다.

	2019년	2020년	2021년
<b>한국</b> (전년동기대비)	453,000	404,000 (▽10.9)	<u>554,000</u> (△37.1)
<b>일본</b> (전년동기대비)	586,000	493,000 (▽15.9)	<u>607,000</u> (△23.1)
<b>미국</b> (전년동기대비)	1,366,000	1,142,000 (▽16.3)	<u>1,399,000</u> (△22.5)
<b>중국</b> (전년동기대비)	1,989,000	1,907,000 (▽4.1)	<u>2,475,000</u> (△29.7)
<b>대만</b> (전년동기대비)	265,000	266,000 (△0.3)	<u>343,000</u> (△28.9)
<b>EU</b> (전년동기대비)	5,523,000	4,564,000 (▽17.3)	<u>5,194,000</u> (△13.8)

표 1 각 나라별 수출액 (단위: 천\$)

# COVID19와 수출량 분석

## 1. 전 세계 COVID19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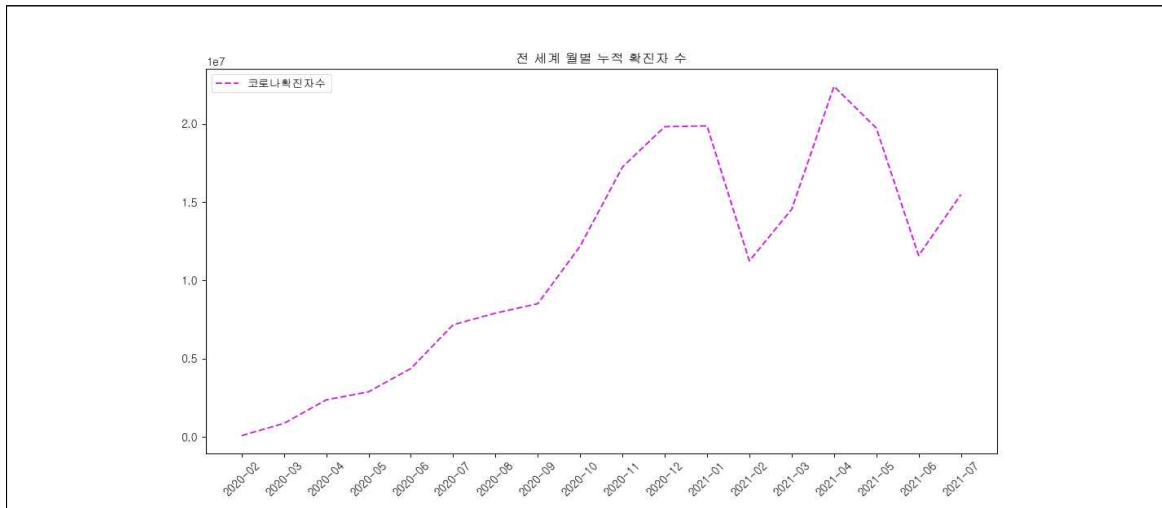


표 2 전세계 코로나 누적확진자 동향

- 전 세계 확진자 수는 약 21억명, 사망자는 444만명, 치명률은 2%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 전반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고,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2. 우리나라 및 각 나라별 수출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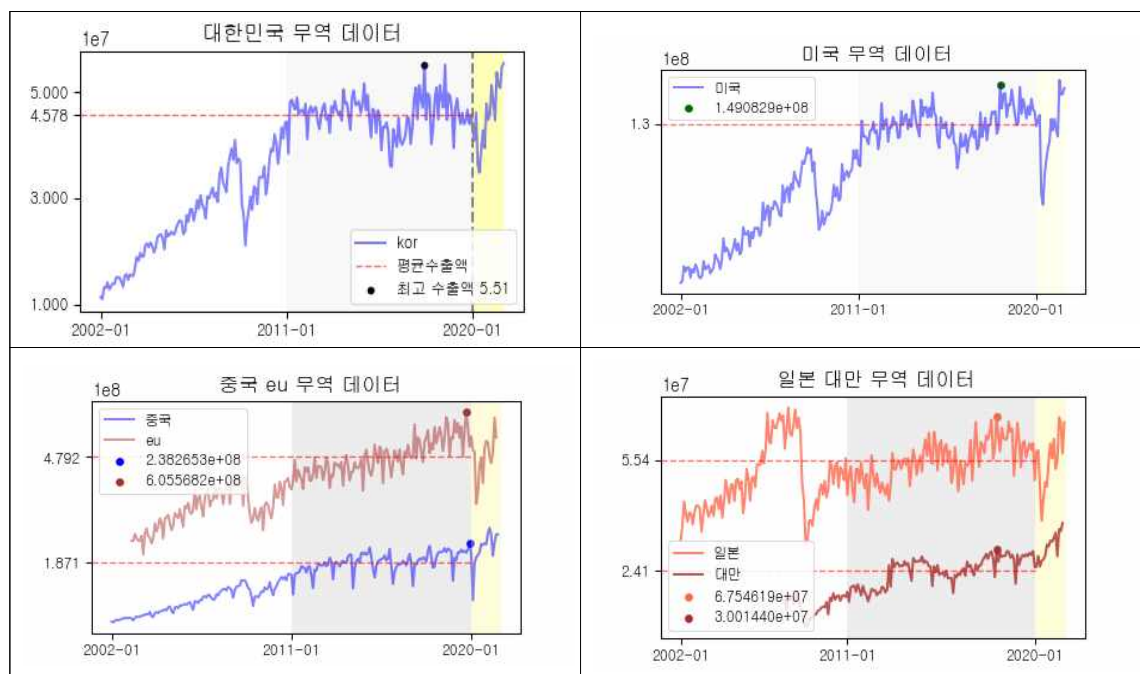


표 3 각 나라별 수출량 그래프

- 2020년 COVID19로 인한 수출액 급락 이후 모두 지난 10년 동안의 월평균 수출액을 회복과 더불어 플러스 성장을 했고, 일부 나라들은 지난 10년간에 최대 수출량보다 더 많은 수출을 한 나라들도 보임.

구분	2011-2019		2021-7
	평균	최대	
대한민국	457	551	554(21.2)
일본	554	675	607(9.5)
미국	1,300	1,490	1,399(7.6)
중국	1,871	2,382	2,475(32.2)
대만	241	300	343(42.3)
EU	4,792	6,055	5,194(8.3)

표 4 각 나라별 월평균 수출액(단위 : 억 \$)

### 3. 각 나라별 COVID19 확진자 수와 수출량의 상관관계

- COVID19 시작 이후 월별 누적 확진자 수와 월평균 수출액의 상관관계가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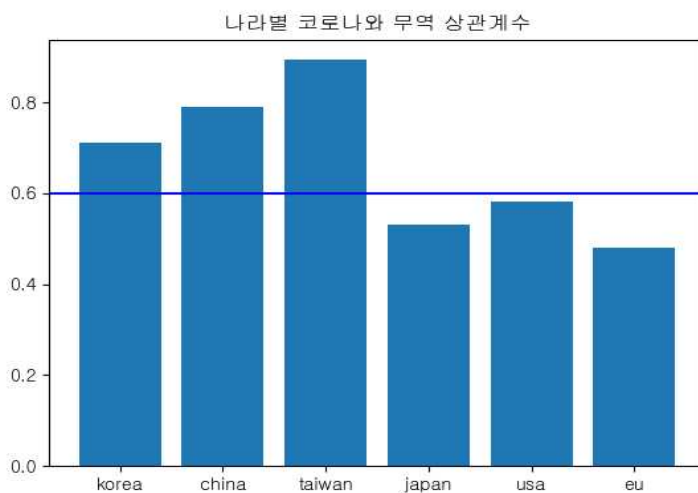


표 5. 코로나와 수출액의 각 나라별 상관관계

#### - 상관관계수(pearson)

( 피어슨의 상관관계수는 일반적으로,

값이 -1.0 ~ -0.7 이면, 강한 음적 상관관계

값이 -0.7 ~ -0.3 이면, 뚜렷한 음적 상관관계

값이 -0.3 ~ -0.1 이면, 약한 음적 상관관계

값이 -0.1 ~ +0.1 이면, 없다고 할 수 있는 상관관계

값이 +0.1 ~ +0.3 이면, 약한 양적 상관관계  
 값이 +0.3 ~ +0.7 이면, 뚜렷한 양적 상관관계  
 값이 +0.7 ~ +1.0 이면, 강한 양적 상관관계 로 해석.)

- 각 나라별 월 평균 수치를 합산했을 때 , 0.6의 높은 상관계수가 나타남.,

#### 4. 수출량 증가 분석

우리나라 무역 분석

○ 7월 월간 수출입, 전년 동월 대비 수출 29.6% 증가, 수입 38.1% 증가

구분	2020년		2021년		
	7월	1~7월	6월	7월	1~7월
수출 (전년동기대비)	42,785 (△7.1)	283,306 (△10.7)	54,838 (39.8)	55,434 (29.6)	358,652 (26.6)
수입 (전년동기대비)	38,849 (△11.2)	268,738 (△9.3)	50,355 (40.7)	53,662 (38.1)	338,903 (26.1)
무역수지	3,936	14,568	4,483	1,772	19,749

표 6. 우리나라 수출입, 전년도 대비( 단위 : 백만 \$)

○ 수출

- 주요 수출품목 중 반도체(38.2%), 석유제품(73%), 화장품(38.2%) 증가

○ 수입

- 주요 수입품목 중 원유(72.7%), 가스(118.7%), 석유제품(135%)증가

○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 수출대상국 중 중국, 미국, 유럽연합 등에 대한 수출량이 꾸준히 증가했고, 주요 품목으로는 반도체, 석유제품, 화장품, 승용차, 선박 등이 증가, 액정디바이스 등 감소함

#### 세계 자동차시장 'V자 반등'...한국車 점유율 8.0%로 증가

인도·美·중국시장 2019년 수준까지 회복...92% 수준

한·중·일 등 아시아계 점유율 50.6%...美·유럽 제쳐

2021년 상반기 해외 주요시장 메이커 국적별 판매 현황

(단위: 천대,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상반기	비중	상반기	비중	상반기	비중	19년동기비	전년동기비
미국계	5,830	18.8	4,296	19.6	5,010	17.5	-14.1	16.6
유럽계	10,051	32.4	6,678	30.5	8,351	29.2	-16.9	25.1
일본계	7,903	25.5	5,713	26.1	7,546	26.4	-4.5	32.1
한국계	2,303	7.4	1,665	7.6	2,297	8.0	-0.3	37.9
중국계	4,245	13.7	3,091	14.1	4,619	16.2	8.8	49.4
기타	713	2.3	441	2.0	749	2.6	5.1	69.8
합계	31,045	100.0	21,885	100.0	28,572	100.0	-8.0	30.6

(자료=한국자동차산업협회)

을 상반기 미국·중국·유럽·인도·멕시코·러시아·브라질 등 세계 7대 자동차시장 판매가 'V자 반등'에 성공하며 코로나 19 이전인 2019년의 92% 수준까지 올라왔다. 한국 완성차업체 역시 을 상반기 세계시장에 229만7000대의 완성차를 판매해 2019년 상반기(230만3000대) 수준에 근접했다. 특히 세계시장 점유율은 2019년 상반기 7.4%에서 을 상반기 8.0%로 2년만에 0.6%p 증가세를 보였다.

그림 1. 자동차 수출량 자료.

- 한국 완성차업체들의 상반기 세계 시장점유율은 2019년 7.4% ~> 2020년 7.6% 성장.

2021년 8.0% 이상의 빠른 증가세를 보임.

- 국가별로는 미국(2020년 8.5%→2021년 9.7%), 유럽(6.9%→7.6%), 인도(22.9% →23.3%)의 점유율 증가세를 보였다.

### 코로나에도 잘나가는 K뷰티...작년 화장품 수출 8조 지난해 화장품 수출액 사상 최대...16% 올랐

한류열풍으로 중국·일본 등 주유시장서 선방  
대 중국 수출 38억 달러...전체의 50.3%

국내 화장품 기업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K-팝, 한국드라마 등 한류 열풍을 타고 K-뷰티가 중국, 미국, 일본 등 주유시장에서 20%대 이상의 높은 증가세를 보이는 등 시장 공략에 성공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5일 관세청 수출입무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화장품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6.1% 증가한 75억7517만 달러(약 8조3400억원)를 기록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수입은 14억8263만 달러로 무역수지가 60억9255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화장품 무역수지는 2000년부터 줄곧 적자를 보이다 2014년 4억8722만 달러로 15년 만에 처음으로 흑자로 돌아선 후 줄곧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수출도 매년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등 성장세를 이어 오고 있다.

국내 화장품 기업들은 지난해 모두 160개 국가에 화장품을 판매했다. 그러나 수출의 절반 가량이 중국에 몰리는 등 수출 집중 현상은 여전했다. 대 중국 수출액은 전년보다 24.5% 늘어난 38억1022만 달러를 기록했다.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0.3%로 전년보다 3.4%포인트 커졌다. 대 중국 수출은 지난해 3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12% 감소하면서 줄어드는 듯 했으나 5월 13%, 6월 21% 등으로 가파른 회복세를 보였다. LG생활건강 '후', '숨', 아모레퍼시픽 '설화수' 등 럭셔리 브랜드를 중심으로 중국내 한국제품의 인기가 늘어났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경우 한국 제품은 고위층들이 쓰는 화장품이라는 인식이 강해 럭셔리 브랜드의 인기가 높다.

그림 2. 화장품 수출액 관련 기사 자료.

- 화장품 유형별 수출실적을 살펴 보면 코로나19의 영향이 두드러 졌음을 알 수 있음.
- 코로나19로 인해 위생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년보다 목욕용(65.6%) 영·유아용(40.8%), 면도용(30.3%) 등의 성장세.

### ○ 원유

- COVID19 시작 이후 원유가격이 급락한 후 꾸준히 상승
- 원유값 상승으로 인해 기존 상품의 수출가치가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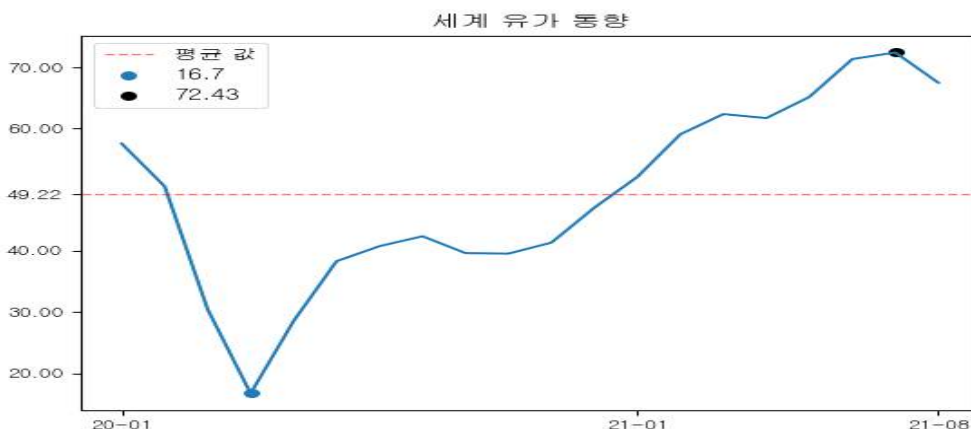


표 7 원유가격 월별 그래프



## 세계 무역 분석

### OECD 자료 참고



Paris, 25 May 2021  
News Release  
G20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 2021년 1/4분기에 G20 상품 거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다 G20 merchandise trade reaches record high in first quarter of 2021

Continuing the recovery initiated in the third of quarter of 2020, **international merchandise trade for the G20 reached record levels in Q1 2021**, as measured in seasonally adjusted current US dollars. Compared with the previous quarter, **exports and imports** increased by 8.0% and 8.1%, respectively.

With the exception of the **United Kingdom**, all G20 economies recorded positive growth in Q1 2021, with the depreciation of the US dollar and the related increases in commodity prices playing a role in the recovery from the COVID-19 lows.

Prices of agricultural commodities, including cereals and vegetable oils, increased by over 10% in Q1 2021, while prices of metals are close to levels last observed in 2011. **Argentina** (exports up 33.3%), **Australia** (exports up 17.5%), **Brazil** (exports up 14.7%), and **South Africa** (exports up 17.3%), among the G20's largest exporters of those products, have benefitted from the rising commodity prices.

Additionally, the nearly 35% increase in crude oil prices in Q1 2021 translated into the rising export values of **Canada** (up 10.8%), **Russia** (up 13.1%), and **Indonesia** (up 12.4%). Since energy products are a major import for most G20 economies, the price increases also resulted in higher import values in the same period.

Finally, the pandemic-related boom in purchases of electronics led to a surge in demand for semiconductors and integrated circuits. Along with several other factors, this led to supply failing to keep pace with demand, resulting in shortages and price rises. While higher trade in semiconductors partly contributed to total merchandise trade growth in the **United States** (exports and imports up by 5.7% and 5.3%, respectively), chip shortages affected, in particular, the automotive supply chains. A slowdown in shipments of vehicles and parts weighed on total merchandise exports from **France** (up 2.7%) and **Mexico** (up 0.4%), both markedly below the G20 average.

**China**, the G20's largest merchandise trader, saw exports (up 18.9%) and imports (up 19.0%) soar in the first quarter of 2021. Chinese import growth was led by metals and metal ores, cereals and integrated circuits, while export growth was led by electronic products including integrated circuits, vehicles, and textiles (including face masks). In the **European Union** exports and imports grew by 3.8% and 5.0%, respectively.

The **United Kingdom** was the only G20 economy to record negative merchandise trade growth, both for exports (minus 5.7%) and for imports (minus 10.5%) in Q1 2021. The slowdown follows large increases in the previous quarter, when stockpiling was taking place in view of the exit from the EU Single Market.

그림 1. OECD 21년 1분기 수출입 상승률 자료



그림 2. OECD G20 그룹 상승률 그래프.

- G20 경제는 미국 달러의 상품 가격의 증가와 함께 플러스 성장
- 농산물 가격이 10% 이상 상승했으며, 원유가격이 약 35% 이상 증가했고, 전자제품 구매 붐으로 반도체 및 집적 회로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2021년 1분기 수출액과 수입액이 각각 8.0%, 8.1% 증가 도용(30.3%) 등의 성장세.



## [ 참고 자료 출처 ]

<https://coronaboard.kr/>

- 코로나 실시간 상황판

<https://www.petronet.co.kr/v3/index.jsp/>

- 석유와역청유

<https://www.oecd.org/newsroom/international-trade-statistics-trends-in-first-quarter-2021.htm/>

- OECD

<https://stat.kita.net/>

-무역데이터

<https://www.customs.go.kr/kcs/main.do/>

-관세청

<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pageIndex=1&nIndex=64654&sSiteid=2&searchReqType=detail&searchCondition=TITLE&searchStartDate=&searchEndDate=&categorySearch=&searchKeyword=%EC%9E%90%EB%8F%99%EC%B0%A8/>

- 자동차 국외 판매 현황

<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nIndex=62241&recommendId=0/>

- K 뷰티 화장품